

# “주택경기 살아난다... 아파트 지을 땅 잡아라”

## 지역주택건설업체들 부지 확보 전쟁 호반·중흥·우미 등 전국에 잇단 매입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의 불바람을 타고 주택건설업체가 ‘땅 찾기 전쟁’에 나섰다. 전국구 무대로 진출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라 신규사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20%(7936가구)를 지은 중흥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필지

이상을 더 사들였다. 규모만 8000가구에 이른다. 이밖에도 진주 혁신도시에서 1필지를 구입, 계약에 들어간다.

중흥건설은 부동산 매입 전담팀을 구성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개발공사의 홈페이지, 신문공고를 매일 점검한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입찰에 나선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 중심에서 주택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며 “당장(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주택 사업을 하려면 땅이 좀더 역할을 하니 매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용지 13개 필지를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등 3개 필지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불과 한 달 동안 광명역세권, 의정부 민락, 아산 당정 등의 공공택지에서 9개 필지를 한꺼번에 매입했다. 13개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규모는 1만가구. 이 회사는 올해 22개 사업장에서 2만여가구의 아파트를 쏟아낼 태세다.

우미건설도 지난해 9월 이후 강릉 유천지구, 평택 소사빌,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 3개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강릉 유천지구는 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양호한 부영과 모아건설 등도 택지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땅 확보 전쟁’에 나선 것은 주택사업이 회복세를 타며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보다는 당장 사업이 가능한 택지지구에서 건설사들이 몰리고 있다.

LH가 무이자 용자를 제공하고 공급가를 조정하는 등 미분양 택지 판매촉진책을 벌인 것도 건설사의 매입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유다. 건설사들이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용지는 속속 ‘안락’ 행렬에 들어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를 지을 만한 우량 민간 택지가 많지 않고 개발사업은 장시간이 걸려 위험 부담이 크다”며 “당분간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유망 토지를 선점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보해 사회공헌본부 직원들이 지난 2월 28일 광주 대인시장을 찾아 영세상인들의 가게를 청소하고 있다. <보해 제공>

## 보해, 사회공헌본부 신설...현장봉사 강화

보해가 최근 사회공헌본부를 신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 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상당수 기업이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지난 32년간 장학사업과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보해(회장 임호섭)는 지난해 11월 사회공헌본부를 설립,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장학금이나 기금 전달 등 금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발이 되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공헌본부 설립 이후, 보해의 사회공헌활동은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는 대인시장 봉사활동에서는 홀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의 업소를 방문, 냉장고와 가게 바닥을 청소하는 것을 비롯해 몸이 불편한 상인들을 찾아 직접 일손을 도와주고 있다.

보해 정진호 전무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면 접촉 활동을 위해 사회공헌본부를 신설하게 됐다”라며 “경기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지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영부문 김진우, 고용부문 오경규, 기술혁신 한상원, 지역공헌 최상준

## 광주상공대상 수상자 4명 선정

### 광주상의 모범근로자 10명도

제2회 광주상공대상에 경영우수 부문 김진우 ㈜나전 대표이사, 고용 우수부문 오경규 ㈜이맥스아이엔시 대표이사, 기술혁신부문 한상원 동아에스텍 회장, 지역공헌부문 최상준 남화토킨 대표이사 등 4명 부문 4명이 각각 선정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제2회 광주상공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 수상자 및 모범근로자 10명을 선정했다.

김진우 나전 대표는 기아차 부품 공급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광주 지역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경규 이맥스아이엔시 대표

는 매년 신규채용을 늘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했다. 한상원 동아에스텍 회장은 이지테크공업 등 100여건이 넘는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통해 공공의 증대에 기여했다. 최상준 남화토킨 대표는 지난해 2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은 석봉도서관을 기부한 바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창립 76년을 맞아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첫 제정된 상으로, 창립 78주년을 맞은 올해 두 번째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5시 신양파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금호고속

### 금호고속 1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금호고속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고속버스 운송서비스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소비자 및 내구력, 서비스업 등 총 199개 산업군 가운데 고속버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운송서비스 부문 리서치는 2001년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금호고속은 이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를 기록, 업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999년부터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기업의 브랜드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매년 발표해 왔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속버스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일(현지시간) 독일 뤼셀스하임의 현대차 디자인센터 방문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담당 사장이자 세번째)와 함께 개발 중인 신차와 콘셉트카를 점검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정몽구 회장 “車 디자인 혁신해야”

### 독일 현대차 디자인센터 방문...“성능과 함께 도약” 강조

독일의 현대차 유럽디자인센터 방문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차량성능과 디자인이 함께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5일(현지시간) 독일 뤼셀스하임에 있는 디자인 센터에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디자인 때문에 현대차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되, 품격이 갖는 디자인을 개

끗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이 유럽디자인센터를 직접 찾아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업체 간 자동차 기술 수준이 점차 동등해지면서 주행성능과 디자인처럼 소비자들의 감성적 만족을 높여 차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유럽디자인센터 점장을 맡은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 유럽기술 연구소를 찾아 현지 기술 전문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과 현대·기아차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임동률기자 exian@

▲ 코스피지수 1975.62 (+4.38)	▲ 코스닥지수 540.33 (+3.56)	▲ 금리(국고채 3년) 2.90% (0.00)	▲ 원·달러 환율 1064.10원 (-6.80)
----------------------------	---------------------------	------------------------------	-------------------------------

## 수출품 원산지 표시제 하반기 개편

### 국내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인정

올 하반기부터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제조된다는 의미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대세였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원산지 표시가 새겨진 수출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새로운 ‘수출먹거리’로 제시한 가공무역 활성화와 관

련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산이 곧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수출품에 대해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최종재를 만들어도 ‘코리아’(Korea)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는 이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 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가 최종재 대비 40~50% 이하인 중간재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가공하거나 단순 조립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에 ‘Processed in Korea’, ‘Assembled in Korea’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연립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왕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업,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번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시 서신동) (063) 275-7766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무례츄르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